

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신호 찾기

2026-03-06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part3_01

정보는 너울(10년+)·파도(6개월~5년)·물보라(단기 노이즈) 3종으로 흐른다. 너울로 방향, 파도로 실행, 물보라는 닦아내는 멘탈 — 위기의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3축 골격.

01 핵심 골격

- 1 3종 물결 메타포** — 너울(Swell·근원 10년+) / 파도(Wave·순환 6개월~5년) / 물보라(Spray·단기 노이즈). 이 셋을 명확히 구별하면 미래 대비 강력.
- 2 투자 3축** — 안목(너울 인지) / 실행(파도 타이밍) / 멘탈(물보라 통제). 호황만 좋아하는 건 진정한 파도 타기 X.
- 3 너울 판별 5 질문** — 인구 구조 / 기술 본질 / 지정학 패권 / 자원·에너지 / 10년+ 지속. 균형·회귀 대전제에 갇힌 주류 경제학은 못 본다.
- 4 너울 4 사례 + 자산 배분** — 한국 고령화→달러 / 부채→금 / 미중 디커플링→원자재(조건부) / AI→결국 매수(신중 진입).
- 5 파도의 4 비밀** — 나스닥 변동성 표(15년에 -60%) / 속도 비대칭(48시간 vs 한 달) / 데드 캣(역대 1위~4위 가짜 반등) / 주도주 교체.
- 6 Dalbar QAIB behavior gap** — 2024 갭 848bps(개인 16% vs S&P 25%). 워런 버핏 "IQ 130 vs 160 게임 X, 기질 게임".
- 7 투자 원칙** 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. 자신만의 원칙 미리 정해두기 (레이 달리오도 시점 못 맞춤).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4)

코스피 사상 최고 7,844.01 (강의 § 7 시간 연장, 2026-05-13 종가)

강의 시점 (2026-03-06) 5,900 → 2026-05-13 7,844.01 = +33%. 강사가 짚은 '5,900→7,000 +18.6% 미끼' 구간을 통과해 7,844까지 추가 진행. 2025 Q1 2,500 baseline 대비 누적 +213.8%. 04-30 6,750 → 5월 가속 (05-12 +4.32% / 05-13 +2.63% 연속 사상 최고).

강의 § 7 '인간 심리는 파도를 거꾸로 탄다' 시각의 시간 연장. 강사가 진단한 '7,000 미끼에 진입할 이유 없음' (5,900→7,000 +18.6%, 2,500→5,900 +140%의 안전 마진 X) 메시지가 7,844까지 가속하는 동안에도 진입 시점 판단 원칙(저점·고점에서 행동, 욕심 거두기)은 그대로 유효. 시간 연장 패러다임 — 강의가 멈춘 시점에서 두 달 더 흐름의 검증.

출처 · koreaherald.com

드러켄밀러 NVDA 전량 매도 + AI 회전 (강의 § 3 각도 확장, Q3·Q4 2024·2025 공개 13F)

Duquesne Family Office 공개 13F — Q3 2024에 NVDA 214,060주 전량 매도 + Palantir 전량 매도 (P/S 27배 · 131배 밸류에이션 우려). 그의 명언 — 'AI might be a little over-hyped now, but under-hyped long-term.' 이후 TSMC·Microsoft로 회전, Q4 2024·Q1 2025 두 분기 연속 Alphabet (+277%)·Amazon (+69%) 매수. 2025년 바이오텍 비중을 포트폴리오 30%로 끌어올림 — Natera 최대 단일 종목. Q4 2025 13F 총 \$4.49B / 62 holdings.

강의 § 3 '드러켄밀러는 AI 첫 파도 마무리 판단 후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 변경' 시각의 공개 사례. 본 데이터는 Q1 2026 13F (SEC deadline 5/15)가 아니라 Q3·Q4 2024 + Q4 2025 시점의 공개 정보 — 강의 정리 시점(2026-05-14) 기준 '최신' 13F가 아닌 '강의가 언급한 거상 판단을 보여주는 공개 사례'. 각도 확장 패러다임 — 강사가 짚지 못한 매도 시점·다음 회전 종목·바이오텍이라는 새 너울 걸을 정량 13F로 확인.

출처 · fool.com

Dalbar QAIB 갭 변동 (강의 § 9 검증·반박, 강의 인용 2025 보고서 vs 보강 2026 보고서)

강의 인용 (Dalbar QAIB 2025 보고서, **2024년 결과): 개인 평균 ~16% vs S&P 500 25% — 갭 약 848 bps (8.48%p). 본 보강 (Dalbar QAIB **2026 보고서**, **2025년 결과**): 개인 평균 17.16% vs S&P 500 17.88% — 갭 **72 bps (0.72%p)**. 1985년 이래 3번째로 좁은 갭, 2012년 이래 최저. 단 채권 측은 Bloomberg Aggregate 7.30% vs 개인 2.41%로 갭 489 bps 확대.**

강의 § 9 'behavior gap = 인간 본성 (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감정)' 시각의 검증·반박. 2024년 8.48%p 큰 갭에서 2025년 0.72%p로 급격 좁아짐 — 인지 편향이 사라진 게 아니라 2025 특수 환경(낮은 시장 분산, AI 매매 비중 ↑, 변동성 ↓)의 영향으로 해석. 강의 메시지의 골격(behavior gap은 인간 본성)은 유효하되, 매년 표현 강도는 변동. 채권 측은 오히려 갭 ↑ — 자산 군별 결이 다르다는 새 시각 추가.

출처 · dalbar.com

금값 2026-04 흐름 + 미-이란 전쟁 변수 (강의 § 5· § 10 사례 후속)

강의 시점 (2026-03-06) 이후 흐름 — 2026-03-25 \$4,473.50/oz (4월 선물 개장가), 2026-03-26 \$4,508.90, 2026-04-13 약 \$4,728/oz. 2026-01-29 사상 최고 \$5,595/oz 대비 -15%. 미국 개입 변수 진화 — 통화 정책(선물 증거금 상향) + 군사 개입 (2026-02-28 미·이스라엘 이란 타격, 2026-04-13 미국 이란 항구 봉쇄).

강의 § 5-② '달러의 유일 경쟁 = 금, 미국 적극 개입은 항상 존재'와 § 10 '속도의 비대칭성 — 5,500→4,900 48시간 vs 4,900→5,200 한 달' 사례의 사례 후속. 강의 시점 이후 흐름이 단순 통화 정책 개입을 넘어 **군사 개입(미-이란 전쟁)**으로 양상 진화. 강의가 짚은 '미국이 금값을 억누르려는 동기'에 패권 전쟁이라는 새 변수가 합류. 사례 후속 패러다임 — 강사 인용 사례의 그 후 흐름 확인.

출처 · finance.yahoo.com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7가지

- 01 한국 고령화 너울 = 달러 충분히 편입** — 환율은 그 나라의 주가. 활력 있는 젊은 인구 ↑ = 통화 가치 ↑, 고령화·저출산 = 원화 장기 하락. 외환당국 개입이라는 파도(1,500원 방어 사례)는 짧게는 2~3년, 길게는 4년 진행 가능 — 단계 진입.
- 02 국가부채 너울 = 금 충분히 편입** — 미국·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시대. 달러의 유일 경쟁 = 금이라 미국 개입은 항상 존재 (선물 증거금 상향 + 군사 개입까지 확장). 짧게는 3개월, 경기 순환은 2~3년 파도.

-
- 03** **미중 디커플링 너울 = 원자재 부상 가능 (조건부)** — 진영을 넘나드는 글로벌 자산 후보. 다만 미국이 1944년 브레튼우즈 이래 원자재 거래를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둠. 투자 용이성 ↓ + 경기 순환 파도 큼.
-
- 04** **AI 혁명 너울 = 결국 사야 함 (진입 시점 신중)** — 인류가 AI 편리함 맛본 이상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감. 다만 진입 속도에는 복잡한 파도. 3·4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.
-
- 05** **한국 로보틱스 스타트업 = 옥석 미분별 위험** — 2024 주도주 교체 흐름 중 한국 로보틱스는 어떤 회사가 진짜인지 안 가려져 위험. (Part 4-1강 § 8 권고와 일관)
-
- 06** **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기** — 레이 달리오조차 "나는 주식 사는 시점을 못 맞춘다"고 인정. 발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겠다는 욕심이 서핑 망침.
-
- 07** **자신만의 투자 원칙 미리 정해두기** — '한 번 팔았으면 급반등해도 안 들어간다' / '폭락 시 일부만 남기고 반등하면 그만큼만 수익 취한다' 같은 원칙 없으면 폭락장 변동성에서 전 재산 잃음.
-

웹 보강 출처 (Perplexity)

- <https://www.koreaherald.com/article/10729471>
- <https://en.bloomingbit.io/feed/news/112002>
- <https://www.fool.com/investing/2025/10/30/billionaire-stan-druckenmiller-sold-pltr-nvda-ai/>
- <https://www.fool.com/investing/2026/03/31/billionaire-stanley-druckenmiller-buys-amzn-googl/>
- <https://www.dalbar.com/press-release/investors-missed-the-best-of-2024s-market-gains-latest-dalbar-investor-behavior-report-finds/>
- <https://www.prnewswire.com/news-releases/dalbars-2026-qaib-report-shows-narrower-investor-gap-amid-a-complex-and-volatile-market-year-302745998.html>
- <https://finance.yahoo.com/personal-finance/investing/article/gold-price-today-tuesday-march-24-gold-moves-back-over-4400-104957743.html>
- <https://www.heygotrade.com/en/news/gold-prices-outlook-week-april-2026-20260413/>

너울(Swell) — 10년+ 구조 변화 (불가역성·시대전환)

파도(Wave) — 6개월~5년 순환 사이클

물보라(Spray) — 단기 노이즈

투자 3축 — 안목·실행·멘탈

너울 판별 5 질문 (인구/기술 본질/지정학/자원에너지/10년)

너울 4대 사례 (한국 고령화 / 국가부채 / 미중 디커플링 / AI 혁명)

워렌 버핏 vs 드러켄밀러 — 두 거상 결 + 13F 시차 함정

경제학자 너울 사각 — 균형·회귀 대전제 (LSE 엘리자베스 2세 2008-11)

Fanding @kpunch · part3_01